

ISSUE BRIEF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안전문화 실현 방안

조민상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apro337@hanmail.net

| 안 | 전 | 충 | 남 |

ISSUE BRIEF 03

SUMMARY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2. 안전문화 관련 현황

- 충청남도 안전정책
- 안전의식 향상 안전교육



3. 해외 안전문화 활동

- SAFETY STARTS WITH ME
- CHILD SAFETY WEEK



4.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제언

- 충남 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
- 쉬운 교육으로의 안전문화 활동 전개
- 보상제도를 활용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안전문화 실현 방안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안전문화란 무엇인가?

- 안전문화는 문화의 하위체계로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없이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음
- 안전문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중요 가치로 내면화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 사고방식, 태도 등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문화가 필요하고, 사각지대는 지리적·위치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간적·인간 중심적인 개념을 의미함
- 충청남도의 안전문화는 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논의의 배경

- 안전 사각지대는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는 물론이고 충청남도 안전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도민 특성, 연령 및 계층, 위험요소, 시기(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사각지대를 의미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안전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지속, 개선, 신규 활동 개발이 논의되어야 함
-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의 형성과 확산,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나타나고 있음
-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의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교통안전·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

〈표-1〉 2015년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결과

구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급(충남)	4	4	3	3	3	4	3
최고/최저	경기/전남	경기/전남	전북/전남	전남/제주	경기/제주	경기/강원	경기/전남

자료 : 안전충남 이슈Brief 창간호, p.3

- 지역의 안전에 대한 지표가 낮게 평가됨으로 인하여 거주 도민은 더욱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도정 전반에 대한 불

만과 불신이 야기될 우려가 큼

- 지역안전지수는 지표 향상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입을 통해서 비교적 단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지역의 안전지수 향상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접근 방식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켜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많은 영역에서 개선의 노력으로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있음.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전파하는 것은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사각지대를 발견·확인하여 보완하면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도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다는 위기는 도민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심과 참여·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도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이 안전지수의 향상은 물론 충청남도의 이미지 상승, 충남 도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

■ 안전문화의 필요성

- 안전문화는 도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 예견된 부분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위험과 재난에 둔감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관심과 무감각한 상황의 일상화로 ‘안전 무지(無知)’ 상태가 지속됨
- 안전 무지 상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바, 이는 일반 도민을 비롯하여 도 공무원의 경우도 도민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변화의 노력이 필요함
- 안전문화가 형성되는데 1차적으로 관 주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 2차적으로는 민관의 협력 방안이 필요함
- 안전문화는 도민을 대상으로 도·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교육 및 개선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충청남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선제적·예방적·자발적인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하며 안전과 위협요소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한 참여와 관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함
- 안전문화는 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안전문화의 확대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실현이 가능함
- 안전에서 사각지대의 존재는 예방부터 대응 전반에 대한 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2. 안전문화 관련 현황

■ 충청남도 안전정책

- 충청남도는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를 두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 안전문화교육 및 안전비전TF, 민방위비상대비, 민생사법경찰, 경보통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안전문화교육팀은 안전문화 교육과 홍보,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안전문화교육은 ①생애주기별 맞춤형 도민안전교육, ②안전문화운동 홍보를 통한 안전정보 전파, ③안전교육·체험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세부 업무가 나타남
- ‘안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감대 형성’의 비전하에 안전의식 강화, 안전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안전교육은 취약계층(노인, 아동)의 안전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충남의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에 대한 관심과 파악이 필요함 - 예) 다문화 가정, 외국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 안전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안전문화, 생활 속 실천·행동 강조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도민들의 관심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안전문화는 도민의 의식과 실천, 자율성의 측면에 접근되어야 함

〈표-2〉 충남도청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 안전충남 비전 수립	· 총무(2200분야) 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재난안전실 및 과내 예산·회계업무
· 도의회 및 국정감사 등 관련업무	· 안전소방분과 정책자문위 운영 지원
· 도 안전관리계획수립	· 재난상황 민간모니터단 구성 운영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 재난안전포털 구축 및 운영	· 충남 안전비전 관련 안전문화업무 추진
· 실과장 직무성과 계약과제 관리	· 재난안전종사자(공무원) 전문교육 계획수립 및 관리
· 실내 조직,인사 및 근평관리	· 시군 안전문화업무 지원
· 시책구상 업무추진	· 안전체험 교육 지원
· 도서지역 헬기장 설치 등	· 안전문화운동추진 법인등록 및 관리
· 안전충남 비전 수립·지원	· 안전충남비전 실행계획 수립
· 지역안전지수 개선, 주간 안전정책 동향작성 등	· 안전비전 위원회 운영
· 재난안전실 및 과내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연구센터 지원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

■ 안전의식 향상 안전교육

- 충청남도도는 안전을 필수 불가결한 가치라는 인식하에 관련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안전습관의 내재화를 위한 교육, 위기상황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콘텐츠 보급 및 교육으로 구분, 대상을 개별화하여 교육을 실시

〈표-3〉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충남 맞춤형 안전교육

구분	교육명
안전습관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어르신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
	교통품격 높이기 교육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역량 강화교육
	농업기계이용 안전교육
	안전문화의식 역량 강화교육
	생활안전 실천교육
	어선·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워크숍 연찬회 활용 안전교육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및 실습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과 운영
	시군, 교통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콘텐츠 보급	동영상 제작 보급
	표준화된 안전문화교육 자료 제작, 배포

출처 : 충남 안전문화교육팀 내부자료, 2016.

-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다문화 가구의 증가,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매체의 선택이 필요함
- 맞춤형 안전교육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검증도 필요하며, 미비점을 확인하여 향후 개선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해외 안전문화 활동

■ 'Safety Starts with Me'

- 2014년부터 미주지역에서 확산된 산업 안전문화 활동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사업주 및 관리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 작업장 및 산업시설에서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개의 행동 지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팀원의 안전과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시함
- 타인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위험의 점검 의식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1〉 'Safety Starts with Me' 캠페인



■ 'Child Safety Week'

- 영국의 '어린이사고 방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임
- 연령대를 3~5세, 5~7세, 7~11세, 11세~14세, 성인으로 구분하여 해당 유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확산하여 관심의 유도 및 상호 전파를 통해 안전문화의 확산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와 일반인에게 안전을 위한 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어린이 관련 시설, 아동센터, 지역사회 단체를 방문하여 일주일 동안 행사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함
- 매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중요 키워드가 설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함
- 자동차 좌석 안전점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테마 퀴즈, 학교 응급처치 훈련 및 교육 활동,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테마 게임 및 놀이 활동, 교육자료 배포 및 홍보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
- 영국의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기금을 지원하고 학교안전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토록 함
- 지방의회는 교통 및 도로안전담당자를 통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실시함
-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전담 조직을 통해 아동의 외상서비스 및 화상, 응급처치 실시 및 교육을 담당
- 소방 및 경찰은 어린이 안전, 구조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아동 센터 및 관련 기관은 저소득층 가정지원서비스,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함

〈그림-2〉 'Child Safety Week' 홍보 메인 페이지



Child Safety Week 2016 is here!

자료 : <http://www.childsafetyweek.org.uk>

4.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제언

■ 충남 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

- 충남은 고령 인구의 증가, 외국인 인구 유입,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변수가 다양함. 이는 충남의 안전에 대한 특성으로 표면으로 부각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바, 숨겨진 영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전국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충남만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충남 내부의 지역 중심적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 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사각지대 및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소통 전담 창구가 필요함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연령대 및 인구 유동,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 활동이

마련되어야 함. 각 실·국 및 관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동 계획을 재분석하여 중복을 피하고, 적용 및 활동 효과를 고려한 업무 분장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쉬운 교육으로의 안전문화 활동 전개

- 교육은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민의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쉬운 교육이 되어야 함
- 어려운 교육과 접근이 곤란한 교육은 오히려 도민의 관심을 저해하여 관심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음. 안전문화의 형성과 정착은 교육을 배제하고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교육활동이 필요
- 전문가 및 공무원이 교육담당자가 되는 경우, 자칫 도민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과 괴리된 교육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음. 전문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도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형성되어 오히려 안전문화 및 교육은 도에서 예산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위한 활동으로 오해받기 쉬움
- 교육 자료 및 매체의 쉬운 이해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쉽게 고려되어 교육 소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안전문화 교육의 공백을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함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고령 등으로 접근 대상을 고려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교육의 거점도 도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보상제도를 활용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

- 안전은 도민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인의 관심과 안전문화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 그럼에도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참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안전문화의 성공여부는 도민·지역사회 관련 기관·민간단체·공무원의 관심과 참여, 자발성,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개인별 사적 영역이 아닌 타인,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전문화에 기여하게 되는 활동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무원의 경우 안전관련 부서는 업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비난을 받는 자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업무의 회피는 전문성과 지속성, 책임성이 결여됨. 별도의 인사고가 반영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요구됨